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제26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 표 논 문 집

일시 : 1999년 12월 16일(목) - 12월 18일(토)

장소 : 올림픽 파크텔(숙소)

올림픽회관 국제회의실(발표장)

주최 : 국 어 학 회

후원 : 한국학술진흥재단

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에 대하여

—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

조 의 성 (일본 현립 니가타 여자 단기대학)

0.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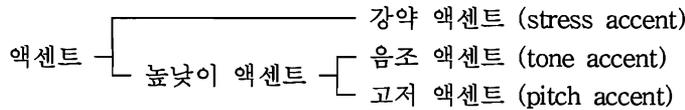
이 발표는 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를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정리, 체계화하는 것이다. 우선 액센트론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성조체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를 다시 정리, 체계화하고자 한다.

1. 액센트론의 기본적 개념

1.1 강약 액센트와 고저 액센트

본고에서 “액센트”란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즉, 인구어의 강약 액센트(stress accent) 뿐만 아니라 높낮이도 액센트로 보고 강약과 높낮이에 관한 언어현상을 광의의 액센트로 인정한다.

높낮이 액센트는 다시 음조 액센트(tone accent)와 고저 액센트(pitch accent)로 나눌 수 있다:



음조 액센트는 한 단위(많은 경우 음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높낮이 유형이 있어 그 단위 내부에서 높낮이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현대 한어(漢語) 북경방언은 고조(제1성), 상승조(제2성), 저조(제3성), 하강조(제4성)이라는 네 가지 유형이 그것 자체로 서로 식별된다:

媽 mā (제1성) “어머니”	麻 má (제2성) “베”
馬 mǎ (제3성) “말”	罵 mà (제4성) “꾸짖다”

그 한편, 고저 액센트는 한 단위 내부에서 오르내림이 없고 높낮이는 단위와 단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현대 일본어 도쿄방언은 저조와 고조가 있고 이 두 높낮이는 단위와 단위 사이에서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식별된다:

a-me(고-저) “비”	a-me(저-고) “옛”
---------------	---------------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중국어와 같은 음조 액센트가 아니라 일본어와 같은 고저 액센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성조를 **고저 액센트**의 관점에서 분석, 체계화한다¹⁾.

1.2 액센트핵

고저 액센트에 관해서는 일본어에서의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 “성조”라는 용어는 중국 음운학의 용어를 그 당시의 학자들이 그대로 빌려 쓴 것으로 간주되는데, 중세국어 높낮이의 성질을 감안할 때 이 용어의 사용은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저 액센트에 관한 기본개념을 일본어 액센트론을 살피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 도쿄방언의 경우, 고조가 어디서 저조로 바뀌는가가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gengogaku'(언어학)란 단어는 gengo까지는 계속 높은 소리로 발음되고 gaku는 낮은 소리로 발음된다. 이 때 go 다음에 저조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고 해석해서 이것을 **액센트핵**이라고 부른다. 동경방언의 경우는 저조로 바뀌기 때문에 (즉 높낮이가 하강되기 때문에) 하강 액센트핵이라고 부르고 이를 gengo^ˈgaku와 같이 표시한다.

hasi라는 일본어 단어를 예로 들면, 액센트핵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단어가 구별된다:

- (1) a. ha^ˈsi(箸): 고저 b. ha^ˈsiɡa(젓가락이): 고저저
- (2) a. hasi^ˈ(橋): 저고 b. hasi^ˈɡa(다리가): 저고저
- (3) a. hasi^ˈ(端): 저고 b. hasiɡa^ˈ(끝이): 저고고

(2)와 (3)은 단독으로는 둘다 “저고”로 나타난다. 이 두 단어의 식별은 뒤에 조사가 붙은 b.에서 가능하다. 즉 (2)는 si 다음에 하강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낮게 발음되지만 (3)은 하강 액센트핵이 없기 때문에 조사도 높게 발음된다.

위와 같이 액센트핵은 단어를 변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이다.

동경방언의 경우, “액센트핵 이전은 높게 발음된다”고 했지만 (2)와 (3)의 예를 보면 ha가 낮게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쿄방언에서 액센트핵이 둘째 단위(위의 예에서는 si) 이후에 있는 경우 첫째 단위(위의 예에서는 ha)는 자동적으로 낮게 시작된다는 음성적 제약이 있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첫째 단위가 낮은 소리가 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²⁾. 이와 같이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높낮이의 실현은 구음조(句音調)라고 불린다.

결국, 액센트의 실현에 있어서는 액센트핵의 설정과 같이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구음조와 같이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1.3 액센트절

일본어 'sakeno tamago'(연어 알)의 액센트는 sa^ˈkeno tama^ˈgo이다. 여기서 sakeno, tamago가 각각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액센트핵 sa^ˈ는 덩어리 sakeno에 적용되어 sa가 높게, keno가 낮게 발음되며 액센트핵 ma^ˈ는 덩어리 tamago에 적용되어 tama가 높게(단 구음조에 의해 ta는 낮게 실현됨), go가 낮게 발음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액센트핵의 영향이 미치는 덩어리를 **액센트절**이라고 부른다. 언어의 문법적 단위로 “어절”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액센트에는 액센트절이 있는 셈이다. 액센트절은 일반적으로 단어³⁾와 일치될 경우가 많지만 가끔 단어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⁴⁾.

1.4 모라

일본어 액센트론에서는 음절이란 개념과 별개로 **모라(mora)**란 개념이 사용된다. 음절과 모

2) 실제로 gengogaku와 같은 경우, 첫째 단위인 ge는 사람에 따라 낮게 발음되기도 하고 높게 발음되기도 한다.
3) 여기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절”이라고 불리는 단위이다.
4) 예를 들면 일본어 'kono hito'(이 사람)의 경우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면서도 하나의 액센트절이 된다. kono(이)와 hito(사람)은 개별적으로는 둘다 액센트핵이 없는 단어이다.

라에 대해서는 사이토(1997:102)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음절은 음의 연속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눈 분절적 단위이지만 …(중략)… 모라는 길이를 기준으로 한 시간적 단위로, 1모라는 단모음만(V) 내지는 자음과 단모음만(CV)으로 이루어진 짧은 음절 하나의 길이에 해당된다. 물리적인 길이는 엄밀한 의미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화자, 청자는 대강 같은 길이로 느낀다.”

예를 들어 ‘kaidan’(계단)이라는 일본어 단어를 음절로 나누면 kai-dan과 같이 두 음절로 나뉘지만 모라로 나누면 ka-i-da-n과 같이 네 개 모라로 나뉜다. 즉 일본어 화자에게는 이중모음 ai나, an과 같은 “모음+n”이란 구조는 두 개의 길이를 가진 단위로 인식된다.

2. 15세기 국어의 액센트

2.1 액센트핵과 구음조

가도와키(1976), Ramsey(1978), 金星奎(1994) 등 많은 논자들이 단어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거성이 성조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고조(거성)의 위치에 **상승 액센트핵**이 있다고 해석된다. 상승 액센트핵 이전에서는 저조로 실현되고 상승 액센트핵 이후에서는 고조로 실현된다.

(4) 얼굴 ○○ 하·눌 ○「○ ·구·름 「○○

‘얼굴’은 고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액센트핵이 없고, ‘하·눌’은 ‘눌’에서 첫 번째 고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눌’ 직전에 상승 액센트핵이 있으며 ‘구·름’은 ‘구’에서 첫 번째 고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구’ 직전에 액센트핵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액센트핵 이후에도 저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하·눌로·셔 (6-17a)⁵⁾ ○「○○○

이와 같은 현상은 金完鎭(1963)에서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이라고 불린 것이다⁶⁾. 金星奎(1994)는 이 현상을 “울동규칙”이라고 부르고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에 의하면 첫 번째 거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거성 이후에 음절이 몇 개 있는가에 따라 첫 번째 거성 이후에 나타나는 성조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金星奎 1994:11):

거○→거거	평거○→평거거	평평거○→평평거거
거○○→거평거	평거○○→평거평거	평평거○○→평평거평거
거○○○→거거평거	평거○○○→평거거평거	평평거○○○→평평거거평거
거○○○○→거평거평거	평거○○○○→평거평거평거	

(○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음절임)

이것을 액센트론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 …「고저고
 …「○○○○ → …「고고저고
 …「○○○○○ → …「고저고저고

5) 본고에서 특별히 출전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석보상절에서 수집한 용례이다.

6) “三音節 내리 繼續되는 것을 忌避”(金完鎭 1963:66)하는 현상을 이른다.

즉 액센트핵의 위치만 정해지면 액센트핵 이후의 높낮이는 음성적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구음조의 한 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위 “거성불연삼”은 음운론적 차원에서 서가 아니라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2.2 상성의 해석과 모라

상성에 관해서는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느냐, 아니면 “저조+고조”이라는 복합적 단위로 보느냐는 논의가 있어 왔다.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볼 때, 상성은 저조와 고조의 복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⁷⁾. 예를 들어서 ‘말’은 ○^ㅍ○로 해석되는데 이 해석의 타당성은 ‘마리·라’에서 ‘리’가 평성으로 실현되는 현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a. :말 ○^ㅍ○

b. :마리·라 ○^ㅍ○○○ > 저고저고(상평거)

(6)a.처럼 ‘말’을 ○^ㅍ○로 해석해서 그 중간에 액센트핵을 설정하면 “울동규칙”에 따라 …^ㅍ○○는 “…고저고”로 실현된다.

이와 같은 상성의 해석은 1음절인 상성을 하나의 액센트적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ㅍ○처럼 음절과 별개의 두 개 단위로 나누어서 파악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상성은 저조 모라와 고조 모라가 어울린 두 모라임을 나타낸다. 결국 15세기 국어의 액센트는 음절을 최소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라를 최소단위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용언 어간의 액센트

3.1 어간 확정과 액센트

15세기 국어의 성조를 분석할 때 용언 어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하나의 초점이 된다. 복잡한 성조 교체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여기서 ‘-으-/-으-’란 형태를 가진 단어의 성조를 관찰해 보자.

(7) a. ㅈ·게(9-6a), ㅈ·즈·며(9-7b)

b. :ㅈ·게(6-23a), 지·스·며(6-39b)

c. 들·기(19-8a), 드르·며(19-9b)

(7)a.와 b.에서는 ‘-으-/-으-’가 거성으로 실현되며 c.에서는 평성으로 실현된다. ‘-으-/-으-’가 어미에 속한다고 보면 (8)의 (i)과 같이 ‘-으며(-으며)’에는 두 가지 성조 유형이 있다고 해석해야 하지만 ‘-으-/-으-’를 어간에 소속시켜서 해석하면 (8)의 (ii)와 같이 ‘-며’는 항상 동일한 액센트형을 갖게 되어 기술을 더 체계화할 수 있다:

(8) a. ㅈ·게 ○-^ㅍ○ ㅈ·즈·며 (i) ○-^ㅍ○○ (ii) ○^ㅍ○-^ㅍ○

b. :ㅈ·게 ○^ㅍ○-○ 지·스·며 (i) ○-^ㅍ○○ (ii) ○^ㅍ○-^ㅍ○

c. 들·기 ○-^ㅍ○ 드르·며 (i) ○-○^ㅍ○ (ii) ○○-^ㅍ○

결국, ‘-으-/-으-’의 성조가 평성이냐 거성이냐 하는 것은 어간의 종류에 완전히 의존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어간의 일부로 간주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근 뒤에 붙는 ‘-아-/-어-’, ‘-오-/-우-’도 어간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

7) 가장 이른 논의로서는 고노(1946)에서 ‘그’에 주격 ‘이’가 붙어서 ‘괴’로 되는 예를 들고 있다.

이러한 어간의 인정 방법은 바로 고노(1979)에서 “어기(語基)”라고 명명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성조 기술에서 어기의 유효성을 인정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용언 어간의 성조를 기술하기로 하고,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제Ⅳ어기⁸⁾를 각각 Ⅰ, Ⅱ, Ⅲ, Ⅳ로 표시한다⁹⁾.

3.2 어간의 종류와 그 성조형

어간은 네 가지 어기 사이에서 액센트핵이 이동하지 않는 것과 액센트핵이 이동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2.1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

① 거성 모음어간

- Ⅰ 「○-(·쓰-) ·쓰·디(19-30b), ·쓰·니(13-58b)
- Ⅱ 「○-(·쓰-) ·쓰·며(19-20a), ·쓰·면(23-3b)
- Ⅲ 「○-(·씨-) ·씨(23-13a)
- Ⅳ 「○-(·뿌-) ·뿌·물(19-10a), ·뿌·메(훈언 3b)

‘쓰-’(書), ‘크-’(大), ‘트-’(乘) 등 모음 ‘-으-/-으-’로 끝나는 어간은 ‘호-’(爲)를 제외하고 이 유형에 속한다. 그 이외에 여기에 속하는 것은 ‘피-’(嫉), ‘히-’(白) 등이 있다.

액센트핵 이후의 모라는 음운론적으로 모두 고조이지만 고조 모라가 세 개 이상 연속되면 거성불연삼의 원칙에 따라 저조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쓰·니’에서 ‘니’가 평성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성불연삼의 결과이다¹⁰⁾:

·쓰·니 「○○○ = 고고고 > 고저고(거평거)

② 거성 자음어간

- Ⅰ 「○-(·슴-) ·슴·고(월석 2-33a)
- Ⅱ 「○○-(·수·므-) ·수·므·면(6-33b), ·수·므·니·라(6-45a)
- Ⅲ 「○○-(·수·머-) ·수·머(6-4b)
- Ⅳ 「○○-(·수·무-) ·수·물(월석 2-51a)

③ 거성 ㄹ/르어간

- Ⅰ ○「○-(·모·ㄹ-) 모·ㄹ·고(9-11b), 모·ㄹ·거·니(24-25a)
- Ⅱ ○「○-(·모·ㄹ-) 모·ㄹ·면(23-15a), 모·ㄹ·리·니(6-3b)

8) 어근 그대로의 어간 형태를 제Ⅰ어기, 어근에 ‘-으-/-으-’가 후속된 어간 형태(모음어간의 경우는 제Ⅰ어기와 같은 형태)를 제Ⅱ어기, 어근에 ‘-아/ -어-’가 후속된 어간 형태를 제Ⅲ어기, 어근에 ‘-오-/-우-’가 후속된 어간 형태를 제Ⅳ어기라고 부른다.

몇 개 단어를 예로 들고 여기에 의거한 용언 어간의 교체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어기	제Ⅱ어기	제Ⅲ어기	제Ⅳ어기
받-	바드-	바다-	바도-
보-	보-	·보·아-	:보-(<보·오-)
모·ㄹ-	모·ㄹ-	:몰·라-	:몰·로-
:알·:/아-	:알·:/아·:/아·라-	아·라-	아·로-

9) 어간과 어미의 관계를 밝히는 데 어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고’는 제Ⅰ어기에 붙고 ‘-며’는 제Ⅱ어기에 붙는 등 어미가 제몇어기에 붙는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으-/-으-’ 등을 어간에 소속시킴으로써 어미는 ‘-며-으며-으며’처럼 이행태를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여기에 관해서 자세히는 간노(1997)를 참조.

10) 이에 관해서는 2.1을 참조.

Ⅲ ○ㄹ○○-(:몰·라-) :몰·라(9-2b)

Ⅳ ○ㄹ○○-(:몰·로-) :몰·로(13-37b)

어간 형태는 ㉑ 평성 ㄹ/으어간에 유사하지만 어근 제2모라가 고조임이 특징이다. 이 어간은 방점의 관점에서 보면 ‘모·ㄹ-~:몰·라-’와 같이 성조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라의 관점에서 보면 제2모라 직전에 액센트핵이 있다는 점에서 제Ⅰ어기에서 제Ⅳ어기까지 공통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수효가 매우 적어, ‘모·ㄹ-’, ‘누·르-’(押, 黃)이 확인될 정도이다.

④ 거성 ㄹ어간

Ⅰ ㄹ○-(:들-/드-) ·들·아지·라(24-3a), ·드·디(23-35a)

Ⅱ ㄹ○~ㄹ○○-(:들-/드~드·르-)11) ·들·며(6-16b), ·드·니(13-10a), ·드·르시·며(6-38b)

Ⅲ ㄹ○○-(:드·러-) ·드·러(9-36b), ·드·렛다가(월석 1-36b)

Ⅳ ㄹ○○-(:드·루-) ·드·루·미(13-37a)

⑤ 상성 ㄹ어간

Ⅰ ○ㄹ○-(:알-/아-) :알·오(3-43b), :아·디(9-13b)

Ⅱ ○ㄹ○~○ㄹ○○-(:알-/아~:아·르-) :알·며(6-12a), :아·니·라(6-11b), :아·르·실·씨·라(9-3a)

Ⅲ ○ㄹ○-(:아·라-) 아·라(13-1b), 아·라·라(9-28a)

Ⅳ ○ㄹ○-(:아·로-) 아·로(19-5a), 아·로·미(13-37b),

⑥ 상성 비분리 어간

Ⅰ ○ㄹ○-(:뵈-) :뵈·오(24-16b), :뵈·느·다(13-24b)

Ⅱ ○ㄹ○-(:뵈-) :뵈·면(9-23b), :뵈·시·노·라(23-18a)

Ⅲ ○ㄹ○○-(:뵈·여-) :뵈·야(19-3b)

Ⅳ ○ㄹ○○-(:뵈·요-) :뵈·요·리·라(13-49a), :뵈·요·미(13-47b)

Ⅰ ○ㄹ○-(:엮-) :엮·다(13-7b), :엮·거·튼(9-7a)

Ⅱ ○ㄹ○○-(:엮·스-) :엮·순(9-23a), :엮·스·니·라(13-22b)

Ⅲ ○ㄹ○○-(:엮·서-) :엮·서(6-33a)

Ⅳ ○ㄹ○○-(:엮·수-) :엮·수·미·라(24-2b), :엮·수·미·니(13-39b)

⑦ 상성 분리 어간

Ⅰ ○ㄹ○-(:뵈-) :뵈·어·다(23-18b)

Ⅱ ○ㄹ○-(:뵈-) :뵈·샤(월석 1-18b), :뵈·리·여(월석 1-37a)

Ⅲ ○ㄹ○-(:뵈·여-) 뵈·여(23-15a)

Ⅳ ○ㄹ○-(:뵈·유-) 뵈·유·메(13-10a)

Ⅰ ○ㄹ○-(:짓-) :짓·고(24-14a), :짓·디(9-31a)

Ⅱ ○ㄹ○-(:지·스-)~○ㄹ○○-(:지·스-) 지·스·니(6-30b), :지·스·샤(월석 서 13a)

Ⅲ ○ㄹ○-(:지·셔-) 지·셔(13-53a)

Ⅳ ○ㄹ○-(:지·수-) 지·순(9-6b), 지·수·려(6-26b)

자음어간의 경우, ‘-시-’와 연결되는 제Ⅱ어기에서 상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11) ㄹ어간은 제Ⅱ어기에서 ‘-시-’가 후속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라는 두 가지 이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상성 비분리 어간과 상성 분리 어간은 상성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표면적 차이는 있으나 둘다 제2모라에 액센트핵이 있으며 액센트핵의 위치는 어기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유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으로 분류를 했다.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은 결국 상성어간과 거성어간이다.

3.2.2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는 어간

⑧ 평성 비1모라 모음어간: 제Ⅲ어기 이후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ㄷ외-) ㄷ외·에(6-1b), ㄷ외·오(9-10b)
- II ○○-(ㄷ외-) ㄷ외·니(13-59b), ㄷ월·씨·니(19-11b)
- III ○○^ㅍ○-(ㄷ외·야-) ㄷ외·야(23-28a), ㄷ외·안(6-4a)
- IV ○○^ㅍ○-(ㄷ외·요-) ㄷ외·요·미(19-11b), ㄷ외·요·믄(19-11b)

‘ㄷ외에’, ‘ㄷ외니’ 등에서 ‘에’, ‘니’가 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언 어간이 액센트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액센트핵을 갖는다고 해석된다(4장을 참조).

⑨ 평성 자음어간: 제Ⅱ어기 이후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떡-) 떡·교(9-22b), 떡·디(23-12a)
- II ○^ㅍ○-(머·그-) 머·그·니(6-32b)
- III ○^ㅍ○-(머·거-) 머·거·늘(6-32a)
- IV ○^ㅍ○-(머·구-) 머·구·미(9-18a), 머·구·믄(13-11a)

‘높-’(高), ‘잊-’(忘), ‘닦-’(磨), ‘막-’(妨), ‘모-’(集), ‘믿-’(信), ‘받-’(受), ‘붙-’(付), ‘밝-’(明), ‘잡-’(把), ‘죽-’(死) 등 대부분의 평성 자음어간 용언은 이 유형에 속한다.

⑩ 평성 1모라 모음어간: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보-) 보·게(13-10a), 보·고·도(19-30a)
- II ○-(보-) 보·라(6-36b), 보·며(13-13b)
- III ^ㅍ○○-(·보·아-) ·보·아(9-31a), ·보·아·든(6-15b)
- IV ○^ㅍ○-(:보-) :보·디(9-30a), :보·미(23-13a)

이 어간은 제Ⅰ어기에서 거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⑪ ‘ㅎ-’ 어간: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ㅎ-) ㅎ·다(6-2b), ㅎ·고(19-32b)
- II ○-(ㅎ-) ㅎ·니(24-1b), ㅎ·며(9-12a)
- III ^ㅍ○○-(·ㅎ·야-) ·ㅎ·야(6-8a), ·ㅎ·야·든(13-10a)
- IV ^ㅍ○○-~^ㅍ○-(·ㅎ·요-~·호-) ·ㅎ·욘(23-13a), ·호·려(6-4a)

⑫ 평성 르어간: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늘-/ㄴ-) ㄴ·늘(월석 1-11a)
- II ○-~○○-(늘-/ㄴ-~ㄴ·르-) 늘·며(몽산 46b), ㄴ·르·샤(용 1)
- III ○^ㅍ○-(ㄴ·라-) ㄴ·라(월석 1-7a, 1-14b)
- IV ○^ㅍ○-(ㄴ·로-) ㄴ·름·과(능 2-34a)

⑬ 평성 르/으어간: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다락-) 다락·더·니(6-30b), 다락·디(13-36b)
- II ○○-(다락-) 다락·리·오(월석 서-14b), 다룬(19-6a)
- III ○^ㅍ○-(달·아-) 달·아(훈언 1b)
- IV ○^ㅍ○-(달·오-) 달·옴(9-27a)

여기에 속하는 용언으로서는 ‘시므-~심·거-’(植), ‘그스-~긱·어-’(牽), ‘니르-~닐·어-’(曰) 등이 있다.

⑭ 평성 자음특수어간: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 I ○-(들-) 들·고(23-21a), 들·디(13-58a)
- II ○○-(드르-) 드르·면(9-6a), 드르·라(13-46a)
- III ○^ㅍ○-(드·러-) 드·러(6-22b), 드·러·도(19-24a)
- IV ○^ㅍ○-(드·루-) 드·룬(19-8b), 드·루·미(13-18b)

이에 속하는 용언은 ‘일궂-’과 같은 ㄷ변격어간 용언 이외에 어간 말에 받침 ‘ㄴ’, ‘ㄹ’, ‘ㅎ’을 가진 ‘앉-’(坐), ‘눅-’(臥), ‘낱-’(産) 등이 있다.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는 어간을 관찰하면, 그것은 모두 평성어간이며 많은 경우 제Ⅲ어기와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바꿔 말하면 제Ⅲ어기 모음 ‘-아-/-어-’와 제Ⅳ어기 모음 ‘-오-/-우-’가 고조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4. 접미사와 어미의 액센트

4.1 접미사의 액센트

용언 어간 뒤에 붙는 접미사(선어말어미)는 그 자체가 어기의 활용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언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기 사이에 있어서 액센트가 바뀔 수 있다.

4.1.1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접미사

여기에 속하는 것은 거성어간 용언에 유사한 ‘-더-’, ‘-시-’와 상성어간 용언에 유사한 ‘-습-’이 있다.

- I, II -^ㅍ○-(--더-) 잇·더·니(9-38b) ○-^ㅍ○-^ㅍ○
- IV -^ㅍ○-(--다-)12) 니르·다·니(13-60a) ○○-^ㅍ○-^ㅍ○
- I, II -^ㅍ○-(--시-) 드르·시·고(6-2a) ○○-^ㅍ○-^ㅍ○
- III, IV -^ㅍ○-(--샤-) 니르·샤(19-27b) ○○-^ㅍ○

이 접미사들은 항상 첫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거성불연삼에 의한 평성화를 제외하고 거성으로 실현된다:

‘-습-’은 동사 ‘습-’에서 발달되었다고 추측되는 만큼, 그 활용과 액센트의 양상은 ‘습-’과 동일하다:

- I -○^ㅍ○-(--습-) 이르·습·고(6-38a) ○○-○^ㅍ○-^ㅍ○
- II -○^ㅍ○-(--스·불-) 녀쓰·불·니(23-37b) ○-○^ㅍ○-^ㅍ○
- III -○^ㅍ○-(--스·빠-) 깃스·빠(6-21b) ○-○^ㅍ○

12) 접미사 ‘-더-’, ‘-느-’, ‘-거-’에는 제Ⅲ어기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IV -○^ㅍ○(-스·보-) 프르스·보·미(13-18b) ○○-○^ㅍ○-^ㅍ○

4.1.2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는 접미사

여기에 속하는 접미사는 평성어간 용언에 유사한 ‘-느-’, ‘-거-’이다. 용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Ⅳ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 II -○(-느-) 잇느·나·여(24-18b) ○○-^ㅍ○○

IV -^ㅍ○(-노-) 니르·노·니(13-48b) ○○-^ㅍ○-^ㅍ○

I, II -○(-거-) 니르거·나(19-20a) ○○-○-^ㅍ○

IV -^ㅍ○(-가-) 드와·아지·라(월석 1-11b) ○○-^ㅍ○-^ㅍ○○

金完鎭(1973::1982), 金星奎(1994)에서는 ‘-느-’, ‘-거-’를 “전의적 성조”라고 부르고 평성 뒤에서는 평성으로, 거성 뒤에서는 거성으로 실현된다고 했다.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보면 무액센트핵 어간에 ‘-느-’, ‘-거-’가 붙으면 해당 접미사도 액센트핵이 없기 때문에 접미사는 저조가 된다고 해석되며, ‘-쁘-’처럼 액센트핵이 있는 어간에 붙으면 액센트핵 이후의 모라는 음운론적으로 모두 고조로 해석되기 때문에 접미사는 고조로 해석된다.

4.2 어미의 액센트

대부분의 어미는 제1모라에 액센트핵이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여기서 나열하지 않고, 제2모라 이후에 액센트핵이 있는 어미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i) 체언어미

○^ㅍ○ -드·려, -브·터, -두·고 등

○^ㅍ○○ -:손·디, -:마·다

(ii) 용언어미

○^ㅍ○ -다·가

‘-드·려’, ‘-브·터’, ‘-두·고’ 등은 용언 ‘드리-’, ‘블-’, ‘두-’에서 발달된 것으로 이것 자체로 하나의 액센트절을 이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어미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손·디’, ‘-:마·다’는 시부(1990)에서 “접미어”라고 불린 것인데, 이것 역시 하나의 액센트절을 이루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어미라고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또 ‘-다가’는 *‘다-’와 같은 자립어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제2모라 이후에 액센트핵이 있는 어미는 독립된 액센트절을 이루는 것으로, 일반적인 어미와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액센트핵의 이동

3.2에서 본 바와 같이 어떤 어간은 어기의 종류에 따라서 액센트핵이 이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어떤 조건에 따라 액센트핵이 이동되는 경우가 있다.

(9) a. ·가·느·나·라(6-43b)

b. 바드·샤미(24-18a).

이 단어들의 성조는 원칙 대로이면 다음 (10)과 같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실현된 성조를 보면 (11)처럼 해석된다:

- (10) a. ○-○-「○」○ (가-ㄴ-「나라」) =저저고고(평평거거)
 b. ○「○」-「○」○ (바「ㄷ-샤미」) =저고고고 > 저고저고(평거평거).
 (11) a. 「○」○-「○」○ (「가-ㄴ-나라」) =고고고고 > 고고저고(거거평거)
 b. ○○-「○」-「○」 (바드-「샤미」) =저저고고(평평거거).

(10)과 (11)를 비교해 보면 (11)a.에서는 어간에 액센트핵이 하나 더 생겼고 (11)b.에서는 어간의 액센트핵이 사라진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노(1953), 許雄(1955), 鄭然燾(1963) 등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金完鎭(1973::1982)에서는 “전의적 성조”, “후의적 성조”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으로, 어간 직후에 오는 문법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즉 (11)a.는 ‘-ㄴ-’로 인하여, (11)b.는 ‘-시-’로 인하여 각각 어간의 성조가 변화를 입은 것이다. 이 현상은 비음운론적 규칙인 “울동규칙”과는 달리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액센트핵이 변동으로 보아야 한다¹³⁾.

액센트핵의 이동은 특정 종류의 어간과 특정 종류의 접미사, 어미 사이에 생기는 현상이다. 간노(1983)에서는 이 현상을 자세히 정리했는데 그것을 다시 아래에 정리, 체계화한다(아래서 ㉞은 접미사, 어미를, ㉟는 제Ⅱ어기 형성모음 ‘-으-/-으-’를 가리킴).

5.1 액센트핵이 생기는 것

평성 1모라 모음어간(‘ㅎ-’도 포함함)의 제 I, Ⅱ어기와 접미사 ‘-거-’, ‘-ㄴ-’, ‘-더-’, ‘-시-’, ‘-술-’, 어미 ‘-다가’의 연결에서 어간의 제1모라에 액센트핵이 생긴다¹⁴⁾: ○㉞-, ○「㉞」- > 「○㉞」-.

- ㅎ·거시·뇨(13-43b), ·가·ㄴ·니·라(06-43b),
 ○㉞「○○」 > 「○㉞」○○ =고고고고 > 고고저고(거거평거)
- 보·더시·니(11-31b), ·주·시·니·라(23-47b)
 ○「㉞」○○ > 「○」㉞○○ =고고고고 > 고고저고(거거평거)
- 보·스·하(6-44b), ·오·다·가(23-57b)
 ○㉞「○」 > 「○㉞」○ =고고고고 > 고저고(거평거)

접미사 ‘-거-’, ‘-ㄴ-’, ‘-더-’, ‘-시-’, ‘-술-’, 어미 ‘-다가’ 앞에서 1모라 모음 평성어간이 거성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표면상 그 성조는 1모라 모음 거성어간과 동일하게 실현된다. 金完鎭(1973::1982)에서 “후의적 성조”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것이다.

또, 접미사 ‘-거-’와 접미사 ‘-시-’가 결합된 형태 ‘-거시-’에서는 ‘-거-’에 액센트핵이 생긴다. 이 현상은 무액센트 어간에 붙은 ‘-거시-’로 확인할 수 있다¹⁵⁾: -거-「시-」 > -「거-」시-.

- 니르·거시·든(09-27a), ㄷ·외·어시·뇨(24-51b)
 ○○-「거-」시-○ = 저저고고고 > 저저고저고(평평거평거)
- cf. 니르건·댄(13-40a) ○○-거-「○」, ㄷ·외·어·늘(월석 1-8a) ○○-거-「○」

13) 가도와키(1979)에서도 이 현상을 액센트핵의 이동으로, 음운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액센트핵 이후에서 일어나는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성조 교체와 엄밀히 구별하고 있다.

14) 시부(1990:144)에 의하면 삼강행실도에 ‘ㅎ이다’의 성조가 “거평거”로 실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설명에 따르면 ‘-이-’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가도와키(1976:31)에 의하면 능업경에 ‘ㅎ이다’가 “평평거”로 실현된 예가 소개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판본의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가 방점에 관해서는 착오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가도와키의 정보가 더 확실할지 모른다.

15)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시-’는 직전에 모음으로 끝나는 1모라 저조 형태소가 있으면 그것을 고조로 바꾸는 작용이 있을 듯하다.

5.2 액센트핵이 사라지는 것

평성 자음어간 제II어기와 접미사 ‘-시-’의 연결에서 어간의 액센트핵은 사라진다. 즉, 제II어기 모음 ‘-으-/-으-’가 평성으로 실현된다: ○[㉠]㉠-[㉠]시- > ○[㉠]㉠-[㉠]시-

니브·시·고(23-12b) ○[㉠]㉠-[㉠]시[㉠]○ > ○[㉠]㉠-[㉠]시[㉠]○ =저저고고(평평거거)

결국 “II-시-”라는 환경에서 자음 평성어간과 자음 평성 변칙어간, 그리고 ㄹ 평성어간의 액센트핵의 위치는 모두 동일한 위치, 즉 ‘-시-’의 직전이 된다:

니브시- ○[㉠]㉠-[㉠]시- > ○[㉠]㉠-[㉠]시- (어간 액센트핵 소멸)

드르시- ○[㉠]㉠-[㉠]시- (제II어기 모음은 원래 저조)

느르시- ○[㉠]㉠-[㉠]시- (제II어기 모음은 원래 저조)¹⁶⁾

그런데 이 현상은 접미사 ‘-시-’에 관련된 현상인데, ‘-시-’ 앞의 어간 제II어기형의 액센트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 (12) a. ·슌- [㉠]○- II ·수·므- [㉠]○[㉠]- II-시- ·수·므-[㉠]시- [㉠]○[㉠]-[㉠]시-
 b. :짓- [㉠]○[㉠]- II 지·스- ○[㉠]㉠- II-시- :지·스-[㉠]시- [㉠]○[㉠]㉠-[㉠]시-
 c. 낱- ○- II 나·브- ○[㉠]㉠- II-시- 나·브·시- ○[㉠]㉠-[㉠]시-

(12)a.는 방점도 액센트핵도 변동이 없는 어간이지만 (12)b.와 같은 경우, ‘-시-’ 앞의 제II어기의 액센트는 제II어기의 원래 액센트와 달리 제I어기와 동일한 ○[㉠]○[㉠]으로 실현된다. (12)c.의 경우 역시 ‘-시-’ 앞의 제II어기는 제I어기와 동일한 무액센트핵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접미사 ‘-시-’ 앞에서 제II어기의 액센트형은 항상 제I어기와 동일하게 되어¹⁷⁾, 제II어기에 붙는 접미사, 어미 중에서도 ‘-시-’가 독특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6. 액센트절의 경계와 성조 교체

金完鎭(1973:1982), 金星奎(1994)의 “울동규칙”이 액센트핵 이후의 규칙적인 높낮이 교체 현상이라는 것은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규칙성과 변칙성에 대해서는 가도와키(1976),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간노(1983)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또 金星奎(1994)에서는 성조사의 “휴지”를 설정함으로써 변칙적인 성조 실현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울동규칙”에 어긋나는 성조 실현 현상, 구체적으로는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지 않고 거성이 세 개 이상 연속되는 현상이나 3.1에 있는 “울동규칙”의 성조 실현 유형과 다르게 실현되는 현상을 관찰해 보면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형 중에 성조상의 어떤 경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는 한결같은 차원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경계가 액센트절의 경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액센트절 안에서의 경계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점에 착안하면서 “울동규칙”에 어긋나는 성조 실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6) 평성 ㄹ어간의 경우도 ‘-시-’앞의 제II어기 모음 ‘-으-/-으-’가 평성으로 실현되는데, 이 경우 제II어기 모음 ‘-으-/-으-’가 ‘-시-’ 앞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제II어기는 원래 액센트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음 평성어간처럼 원래 있었던 액센트핵이 ‘-시-’ 앞에서 사라진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다.

17) 따라서 ‘니브·’가 ‘-시-’ 앞에서 액센트핵이 사라지는 현상도 “액센트핵 소멸”이 아니라 “접미사 ‘-시-’ 앞에서 제II어기 액센트의 제I어기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6.1 액센트절의 강한 경계에 의한 교체

두 개의 자립어가 연결되면서 각 자립어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 (13) a. ·눅·물·로(23-28b)
 b. ·슌가라·기(월석 2-40a), ·빤바·당·이(월석 2-40a)
- (14) a. ·스·리·디거·늘(6-9a)
 b. ·나·오·려커·늘(24-18a)

(13)a., (14)a.는 거성불연삼이 되지 않은 예이며, (13)b., (14)b.는 “울동규칙”에 어긋나게 성조가 실현된 예이다. (13)의 예들은 두 자립어가 속격어미 ‘-스’으로 연결된 것이며 (14)의 예들은 동사가 체Ⅲ어기로 연결된 형태인데 이 예들에서는 각 자립어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각 자립어가 하나의 액센트절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다(아래 도식에서 // 표는 액센트절의 경계를 표시함):

- (15) a. ·눅·물·로 「○//ㄱ○○
 b. ·슌가라·기 「○//○○ㄱ○, ·빤바·당·이 「○//○ㄱ○○
- (16) a. ·스·리·디거·늘 「○○//ㄱ○○○
 b. ·나·오·려커·늘 「○//ㄱ○○○○

이러한 예에서는 앞 요소(‘슌’, ‘스리’ 등)와 뒤 요소(‘물로’, ‘디거늘’ 등)가 각각 독립된 액센트절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울동규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액센트절의 경계를 액센트절의 **강한 경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만, 아래 (17)과 같은 예는 ‘손’의 성조가 변화되어 있어 ‘슌가라·굴’ 전체가 하나의 액센트절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¹⁸⁾.

- (17) 슌가라·굴(24-24b) ○○○ㄱ○

6.2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에 의한 교체

위에서 본 “강한 경계”와는 달리, 두 액센트절이 느슨하게 연결되면서 각 액센트절의 자립성이 약간 떨어진 것이 있다. 이러한 액센트절 사이에는 **약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액센트절의 약한 경계는 / 표로 표시하기로 한다).

6.2.1 자립어와 자립어적 어미의 연결

현대국어로서는 어미로 다루어지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마치 하나의 자립어처럼 행동하는 형태가 있다.

- (18) a. 소·리·들·홀(19-15b), :춤·들·히(23-3a)
 b. ·우리·들·히(9-40a)

이 예들 역시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성불연삼이 변칙적으로(거평거거) 실현되는 예이다. 여기서는 ‘들’이 항상 거성을 유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자립어와 같은데¹⁹⁾, 이러한 사실은 ‘들’이 하나의 액센트절이며 ‘들’ 앞에 액센트상의 경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18) 이와 같이 합성된 형태가 하나의 액센트소로 구실하게 되면 그 합성된 형태가 한 단어(즉 합성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 시부(1990)에서는 이러한 것을 “접미어”라고 부르고 어미, 접미사와 구별하고 있다.

같이 하나의 액센트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님’, ‘내’, ‘마·다’, ‘뿐’, ‘손·더’ 등이 있다.

(18)에서 액센트절의 경계를 약한 경계로 인정하고 강한 경계로부터 구별하는 이유는 (18)b. 처럼 액센트절의 경계에 있어서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18)b.는 ‘우리’가 “거거”로 실현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평”으로 실현되는 것은 마치 거성이 네 개 연속되는 것을 기피하는 듯하다. 이것은 ‘우리’와 ‘들히’가 액센트적으로 다른 단위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다른 결과가 아닐까 추측된다:

- (19) a. 소·리·들·홀 ○¹○/¹○○, :중·들·히 ○¹○/¹○○
 b. ·우리·들·히 ¹○○/¹○○

(19)a.에서 거성이 세 개 연속되어 있다. 거성불연삼의 규칙에 따르면 ‘들’이 평성으로 실현되게 되지만 이 모라가 평성화되지 않는 것은 ‘들’에 액센트핵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들홀’, ‘들히’를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정하려면 액센트핵인 ‘들’이 꼭 거성으로 실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모라가 평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19)b도 똑 같은 이유로 ‘들’이 평성화되지 않고 그 직전의 ‘리’가 평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액센트핵의 약한 경계에 있어서는 앞 액센트절의 마지막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을 때는 앞 액센트절과 뒷 액센트절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거성이 세 개 연속될 수 있지만(연속될 수밖에 없지만), 앞 액센트절의 액센트핵이 마지막에서 두번째 모라 이전에 있을 경우에는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6.2.2 문법화된 자립어

‘Ⅱ-르·씨(라)’라는 형태는 관형형 ‘Ⅱ-르’에 불완전 명사 ‘·스’와 지정사 ‘-이(라)’의 융합형 ‘·시(라)’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형태에서는 ‘씨’ 앞에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가 있다고 간주된다.

- (20) a. 갈·씨·오(09-3a), 빨·씨·라(23-15b) ○/¹○○
 b. ·클·씨·니(13-3b) ¹○/¹○○
 :갈·씨·라(09-23b) ○¹○/¹○○
 을·물·씨·오(19-11a) ○¹○/¹○○

(20)b.의 예들은 ‘씨’ 앞에 액센트절의 경계가 있고 앞 액센트절의 마지막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 액센트절의 액센트핵이 마지막에서 두번째 모라 이전에 있으면 6.2.1에서 본 바와 같이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난다:

- (21) a. ·그릴·씨·라(24-10b), 어·드볼·씨·라(월석 서 3b), :업슬·씨·라(13-39b)
 b. ·드·르실·씨·라(23-22b), ·즐·거볼·씨·라(9-2b)

그런데 관형형에서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는 예는 15세기 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 (22) 乎·논 :아·모그에 ·흐논 ·겨체 ·쓰는 字 |·라 (훈언 1a)

(22)에서는 ‘흐논’, ‘쓰는’ 뿐만 아니라 ‘겨체’에서도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흐논 겨체 쓰는’은 모두 거성으로 실현될 듯한데 여기서 평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성 연속의 단조로움을 기피하기 위해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²⁰⁾. 바꿔 말하면

‘흐는 겨체 쓰는’는 각 단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액센트절처럼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어말 거평교체는 운율적인 단조로움을 기피함과 동시에 액센트절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23) a. ·그릴·씨·라 「○○/ㄱ○○ =고고/고고 > 고저/고고
 어·드볼·씨·라 ○「○○/ㄱ○○ =저고고/고고 > 저고저/고고
 :업슬·씨·라 ○「○○/ㄱ○○ =저고고/고고 > 저고저/고고
 b. ·드·르실·씨·라, ·즐·거볼·씨·라 「○○○/ㄱ○○ =고고고/고고 > 고고저/고고

(23)에서 ‘그릴씨라’, ‘드르실씨라’가 각각 “거거평거”, “거평거평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씨(라)’와 그 앞 요소가 액센트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약에 ‘씨(라)’와 그 앞 요소가 각각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식되게 되면 ‘씨’도 평성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 (24) 니르와·들시·라(남명 하 11a) ○○○「○○○ =저저저고고고>저저저고저고

6.2.3 문법화된 지정사

- (25) :술·븃신·니·라(13-25b), :아르·시늬·니·라(13-43a), ·흐·늬·니·라(23-16b)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도 자세히 검토된 바와 같이 (25)의 예는 각각 “:술·븃신--이·라”, “:아르·시늬--이·라”, “*·흐·늬--이·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 형태들은 지정사 ‘이’ 앞에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 (26) *·술·븃신--이·라 ○「○○○○/ㄱ○○ =저고고고/고고 > 저고고저/고고
 *·아르·시늬--이·라 ○「○○○○○/ㄱ○○=저고고고고/고고>저고저고저/고고
 *·흐·늬--이·라 「○○/ㄱ○○ =고고/고고 > 고저/고고

여기서도 약한 경계에서 앞 요소가 어말 거평교체를 일으키고 있다.

문법화된 지정사가 약한 경계를 가지는 것은 앞 액센트절의 액센트핵 이후가 뒷 액센트절을 포함해서 5모라 이상의 단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센트 이후가 4모라의 단어는 지극히 소수이며 대부분은 “울동규칙” 대로 ‘거거평거’로 실현된다:

- (27) a. ·흐·늬·니·라(23-16b) 「○○/ㄱ○○ = 고고/고고 > 고저/고고
 b. ·흐·늬·니·라(6-5b) 「○○○○ = 고고고고 > 고고저고

이러한 사실은 문법화된 지정사가 하나의 독립된 액센트절로 인식되지 않고 액센트절을 이루지 않는 문법적 요소로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와 같은 단계적인 교체 양상은 음운론적인 액센트형이 비음운론적인 고저의 교체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마무리

20) 간노(1983)에서는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는 어말을 “계속형 말미”라고 부르며 액센트핵 이후에서 저조는 “해당 어미 연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견해는 시사적이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어의 액센트형은 단어에 액센트핵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몇 번째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2) 용언 어간은 어기 활용에 따라 액센트핵이 이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3) 접미사도 어기 활용에 따라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4) 어미는 고유한 액센트핵을 가진다.

(5) 소위 “울동규칙”, 즉 “거성불염삼”과 “어말 거평교체”는 비음운론적인 교체이다.

(6) “울동규칙”에 어긋나게 보이는 성조 교체는 액센트절의 경계와 관련된다.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액센트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간결하고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국어 방언의 성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용례를 수집한 영인본

- 『釋譜詳節 第六, 九, 十三, 十九』, 한글학회, 1991
『역주 석보상절 제6, 9, 11』,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역주 석보상절 제13, 19』,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原本 釋譜詳節』, 제6, 9, 13, 19, 23, 24, 大提閣, 1985
『月印釋譜 <卷一, 二>』,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1972
『역주 월인석보 제1, 2』,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 영인』, 『세종학연구』,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7
『남명집언해 영인』, 『세종학연구』,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8
『역주 능엄경언해 제1, 2』,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6

참고문헌

- 金星奎(1994) 『中世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國語國文學科 文學博士學位論文
김성규(1997) 「성조의 변화」, 『國語史研究』, 國語史研究會, 서울
김영만(1967) 「방점(旁點)의 본질에 대한 고찰 —“뫓노픈소리(去聲)”은 high tone인가?—」, 『국어국문학』 제36호, 국어국문학회, 서울
金完鎭(1963) 「形態部 聲調의 動搖에 對하여」, 『西江大學 論文集』 第1輯, 西江大學, 서울
金完鎭(1973::1982) 『中世國語聲調의 研究』, 國語學叢書4, 國語學會, 서울
김주원(1995) 「중세 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뫓노픈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 『언어』 제20권 제2호, 한국언어학회, 서울
김차균(1987) 「중세 국어와 경남 방언의 성조의 대응 관계 연구」, 『한글』195호, 한글학회, 서울
文孝根(1963) 「旁點 本質의 再檢討 — 高低·長短의 主張 —」, 『東方學志』 第7輯, 延世大學校 東方學研究所, 서울
文孝根(1965) 「十五世紀 國語의 聲點 研究 — 主로, 古語辭典의 表題語에 關連하여 —」, 『人文科學』 第13輯, 延世大學校出版部, 서울
文孝根(1966) 「十五世紀 國語의 聲調 變動」, 『人文科學』 第14·15合輯, 延世大學校出版部, 서울
劉昌惇(1964::1987) 『李朝語辭典』, 延世大學校出版部, 서울
李基文(1961::1972) 『國語史概說』 개정판, 塔出版社, 서울
李崇寧(1964) 「十五世紀의 活用에서의 聲調의 考察」, 『亞細亞研究』 第7卷 第2號, 고려대학교 출

판부, 서울

- 鄭然燾(1963) 「15世紀 國語의 活用 語幹의 聲調에 對하여」, 『論文集』 第3輯, 忠南大學校, 대전
- 정연찬(1972) 「중세 국어 성조의 변동과 기본형」, 『한글』 제150호, 한글학회, 서울
- 韓在永(1985) 「中世國語 聲調에 관한 一考察 — 특히 피동사와 사동사의 派生을 중심으로 —」, 『國語學』 제14집, 國語學會, 서울
- 許 雄(1955) 「旁點 研究 (慶尙道 方言 聲調와의 比較)」, 『東方學志』 第2輯, 延禧大學校出版部, 서울
- 가도와키 세이이치[門脇誠一](1976) 「中期朝鮮語における声調交替について(중기한국어에서의 성조교체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79輯, 朝鮮學會, 天理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1983) 『中期朝鮮語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중기한국어의 액센트체계에 대하여)』, 제3회 朝鮮語硏究會 발표요지, 東京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1997) 「朝鮮語の語基について(한국어의 어기에 대하여)」, 『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硏究 IV 日本語と朝鮮語(下卷)』, 国立国語硏究所, くろしお出版, 東京
- 간노 히로오미[菅野裕臣](1998) 「中世韓語的聲調體系(중세 한국어의 성조체계에 대하여)」, 『韓國學報』 第15期, 타이베이
-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京城帝國大學文學會論叢』 第11輯, 東都書籍, 東京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平凡社, 東京, 1979에 수록)
-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51) 「諺文古文獻의 聲點に就いて(언문 고문헌의 성점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1輯, 朝鮮學會, 天理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平凡社, 東京, 1979에 수록)
- 고노 로쿠로[河野六郎](1953) 「中期朝鮮語用言語幹의 聲調に就いて(중기한국어 용언어간의 성조에 대하여)」, 『金田一博士古稀記念 言語民俗論叢』, 三省堂, 東京 (『河野六郎著作集』 第1卷, 平凡社, 東京, 1979에 수록)
- 사이토 요시오[斎藤純男](1997) 『日本語音声学入門』, 三省堂, 東京
- 시부 쇼헤이[志部昭平](1990) 『諺解 三綱行實圖硏究』 전2권, 汲古書院, 東京
- 이토 히데토[伊藤英人](1997) 「中期朝鮮語正音表記漢字語及び漢語借用語について — 声調を中心に — (중기한국어 정음표기 한자어 및 한어 차용어에 대하여 — 성조를 중심으로 —)」, 『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硏究 IV 日本語と朝鮮語(下卷)』, 国立国語硏究所, くろしお出版, 東京
- 핫토리 시로[服部四郎](1954-55) 「音韻論から見た国語のアクセント(음운론에서 본 국어의 액센트)」, 『国語硏究』 2-3 (柴田武, 北村甫, 金田一春彦 편(1980) 『日本の言語学』, 제2권, 音韻, 大修館書店에 재록)
- 후쿠이 레이[福井玲](1985) 「中期朝鮮語のアクセント体系について(중기한국어의 액센트체계에 대하여)」, 『東京大学 言語学論集'85』,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硏究室, 東京
- Kanno, H.[菅野裕臣](1995) 『중세한국어 ㄷ변격용언 3제』, The 17th Conference of AKSE 발표요지, Prague
- Ramsey, S. R.(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A Descriptive and Historical Study*, The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Seoul